

저항권, 법과 권력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원동력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

을 보고



글. 양려원
변호사(법무법인 인터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게임
은 못한다.”

아들이 스스로 자기 방 청소나 숙제, 씻기 정
도의 기본적인 일을 하도록 정한 규칙이다. 규
칙을 정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의 방은 엉망

이 됐다.

“규칙을 어겼으니 오늘부터 내일까지 게임
은 없다.”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되리라. 내심 웃었다. 하
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아들은 잠자는 시간

까지 쪼개가며 몰래 게임을 했다.

“이럴 수가!”

배신과 실망으로 나는 더욱 엄격한 표정을 지었다. 별로 ‘사흘간’ 게임금지를 선언했다. 내 앞에서 잘못을 벌던 아들은 나의 눈을 피해 여전히 게임을 했다. 다시 ‘일주일간’ 게임금지를 명령했지만 이제 아들에게 게임금지의 규칙 따위는 공허해진 느낌이 들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일생에서 법정에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드물다. 법은 최후의 수단일 때가 많고, 세상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다. 법의 한계 앞에서 더러는 ‘법에도 감정이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측가능하다. 적용할 법리나 판례를 찾아내고 주장할 사실들에 몰두하는 것이 일상이다. 몸에 배어서인지 집에서도 나는 법전처럼 뿔뿔한 아버지다. 적어도 열두 살이 된 아들 녀석에게는.

아빠노릇을 고민하는 사이 아들과 함께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았다. 원작의 작품성에 뮤지컬을 입혀 만든 이 영화는 대작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아들 역시 재밌었는지 영화 속 음악을 곧잘 흥얼거렸다.

‘흠~ <레미제라블>이 좋겠군!’

법률가가 본 영화 이야기의 두 번째 텍스트는 2012년 연말에 개봉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이다.

오늘 우리가 가진 법과 문화는 근대를 연 사람들의 싸움에 빚을 졌다. 시대와 공간은 다르



지만 그 시대 민중들이 고민하고 싸워나갔던 모습, 피 흘려 얻어낸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이 가진 모순까지 오늘날과 닮아있다. 그렇기에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고 법률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실 법은 법전 속 깨알 같은 법조문의 딱딱한 얼굴이 전부는 아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법률 조항의 작은 문구 하나를 얻기 위해 싸우고 목숨 바쳤는가! 법은 그렇게 수많은 이들이 목숨 바쳐 얻어낸 권리의 산물임을 상기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는 법의 한계에서 법 감정을 고민하거나, 일상의 법리에 무료해져 정작 그 법리에 담긴 정신을 망각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공허해진 아들과의 규칙에 나름의 해결책까지 찾는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1815년 프랑스 남부 해안도시에서 영화는 시작된다. 거대한 배 한 척이 쓰러져 있고 어두운 밤 폭우 속에서 수백 명의 죄수들이 그 배를 밧줄로 인양하고 있다. 뱃전에 꽃혔던 프랑스 깃발이 죄수들의 발아래 밟히고 있다. 분노에 찬 죄수들의 노래 소리 낮게 울려 퍼지고 그 속에 장발장이 있다.

“빵 한 조각을 훔쳤을 뿐인데!”

그는 굶주린 조카들에게 주기 위해 가게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쳤다. 그로 인한 형벌은 가혹했다. 장발장은 빵 한 덩이 훔친 대가로 5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리고 반복되는 탈옥 시도로 14년을 더 받아 배를 인양하는 중노동에 동원되어 폭우 속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혹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 오히려 세상은 납득 못할 곳이었을 것이다.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중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을 훔친 것도 아닌데 5년씩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니!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하지 않는 모순된 세상의 규칙 따위를 지켜야 할 이유를 그는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의 법으로도 장발장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야간에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쳤다면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이다. 물론 중간에 유리창을 깨고 빵을 훔쳤다면 형법 제329조의 단순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탈옥의 시도는 우리 법으로 보면 형법 제145조

의 도주죄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탈옥 시도가 반복되어 형량이 증가되어도 19년의 징역형은 당시 프랑스 법제상으로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라면 지나친 일이다.

“쓰러진 배가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들은 첫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Look down〉을 반복 재생하였다. ‘아래를 보라’는 말이었다. 죄수들에게 판 데 한눈 팔며 도망갈 궁리하지 말고 일하라는 뜻으로 불렸으리라. 하지만 이 노래는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프랑스 〈7월 혁명〉 과정에서 처참한 민중들의 삶을 보라는 의미로도 불려진다.

영화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26년 된 때부터 시작된다. 인권 선언으로 일반 시민도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였다. 헌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루이16세를 처형한 그들이었다. 공화국이 들어서고 나폴레옹이 집권하였다. 나폴레옹은 왕과 봉건제도 하에서 프랑스의 혁명 과정을 주시하던 유럽에 자유주의를 알리고 변화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나폴레옹의 패각으로 영광은 오욕으로 돌아섰고 프랑스는 다시 왕이 지배하는 복고를 경험하게 되었다. 역사의 퇴보였다. 자랑이던 프랑스라는 배는 쓰러졌고 그들의 자존심은 오욕에 짓밟히고 있었다. 어디 그뿐일까? 수많은 이들의 희생 위에 이룬 혁명의 역사적 업적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었다.

알다시피 프랑스 혁명은 봉건의 종말이자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다. 프랑스 인권선언과 혁명 헌법은 법률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왕과 귀족만이 가지던 권



리를 일반 시민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존엄하며 자유와 평등, 재산에 관
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모든 국가 권력은 국
민에게서 나오고 권력은 분립되어 서로 견제
하고 균형을 이룬다. 우리 헌법에 담고 있는 기
본권과 통치원리의 원형이 여기에서 비롯되었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거주 이
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평등권, 그리고 재산
권의 보장과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칙과 같
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헌법상의 권리와 원
칙들이 사실은 프랑스 혁명의 열매를 이어 받
은 것이다.

하지만 권리는 선언한다고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침
해하는 경우 어떤 절차에 의해 처벌하고 그 권
리를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해 법으로 규정되어
야 한다. 영화 <레미제라블>의 시대는 혁명으
로 선언된 시민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침해와 모순이 난무하여 여전히 혁명이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권리는 아직 세금을 내
는 남성에게 국한되었고 그나마 소수에게 주어진
혜택에 불과했다. 대다수 일반 남성들과 여성,
어린이, 혹은 죄수의 권리는 말할 수 없이 비참
하였다. 영화에서 죄수 장발장, 여성 노동자 판
틴, 그리고 어린 시절의 코제트와 어린 시위대
원 가브로슈는 시대의 그늘에 놓인 권리를 대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인공 장발장은 가석방되지만 척박한 사회
는 죄수의 통행증을 가진 그에게 하룻밤 쉼 자
리조차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그는 간신히 구
한 잠자리인 미리에르 신부의 집에서 다시 도
둑질을 하고 만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일이
지만 생존을 위해서, 혹은 19년간 억울한 옥살



이로 인한 분노에서 그의 행동은 그리 납득 못
할 일이 아니다.

죄수의 수형생활에서 인간의 존엄권이 침해
되는 문제와 전과자의 낙인문제는 정도의 차
이가 있어도 오늘날에도 문제가 된다. 전과자
라는 낙인은 여전히 사회복귀를 어렵게 한다.
과거에 죄를 지었다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
아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성폭력범
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
요하다지만 낙인의 문제와 인권침해의 여지가
많다.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서든 인
간 존엄성의 원칙이 공허하지 않도록 할 의무
가 우리에게 존재한다.

‘나는 어떤 아빠인가? 아들의 존엄성을 지켜주
고 있는 것일까?’

아들에 대한 나의 교육을 권리와 의무에 비
추어 곰곰 생각해본다. 아들의 입장이 되기에
는 여전히 뻣뻣하다.

“아버지, 자베르가 왜 자살을 했는지 잘 이
해가 안가요.”

“그러게 말이다.”

아들에게 대답을 흘리며 나도 생각해 보았다.

‘아, 자베르. 어쩌면 나의 얼굴이 아닐까?’

자베르는 시장 마들렌이 신분을 속이고 살아 가는 가석방수 장발장이 아닐까 의심하며 오랜 시간 그를 추적하는 경찰관이다. 장발장의 입장에서 자베르는 자비를 모르는 추적자에 불과하겠지만, 법과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정의로운 법의 집행자이다. 법은 약속이고 약속을 위반한 사람은 그 연유가 어찌되었든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사회는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함부로 관용을 베풀지 않는 법과 집행자를 안전장치로 하여 믿고 유지된다. 그런 면에서 자베르는 훌륭한 경찰관이다. 그는 법과 자비가 양립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장발장의 자비에 자신의 신념이 훼손당하자 목숨마저 버린다. 법과 정의의 입장에서 그는 순교자와 다를 바 없다. 주인공을 집요하게 쫓는다고 자베르를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것은 법에 대

한 그의 신념과 실천이 숭고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의 자베르라면 어떨까? 법에도 예외가 있고, 관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를 거치면서 자비의 여지도 함께 존재한다. 또 오늘 우리 법이라면 공소시효의 적용으로 장발장과 자베르 모두 자유를 얻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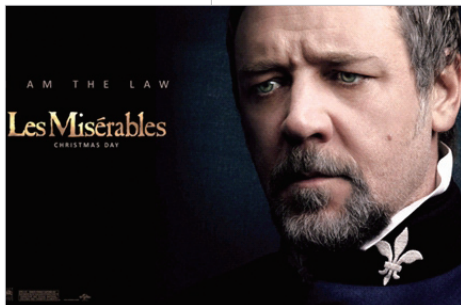
것이다. 모든 절차에 있어 관용이 어렵고 여전히 법이 사람들의 법 감정에 반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의 요구로 봐야 한다. 법은 그러한 요구에 귀 기울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이상적인 법의 모습일 것이다.

‘아빠로서 나는 어떨까?’

물론 자베르에 가까운데 그것이 아들이 원하는 아빠는 아닐 것이다. 아이는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한 없이 관용을 베푸는 미리에르 신부와 같기를 바라겠지? 그런 아빠는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독립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아이의 코를 닦아주고 방을 치워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까? 아직 아빠로서의 고민과 갈등의 답을 찾지는 못하겠다.

다시 영화로 돌아가자. 아름답고 가없는 여인 판틴을 만나야 한다.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던 판틴은 다른 여인들의 모함을 받아 부당하게 쫓겨난다. 거리의 창녀가 된 판틴이 경찰관을 만났을 때 그녀는 법의 부당한 적용에 항변하기보다 ‘제겐 아이가 있어요.’라며 눈물로 자비를 요청한다. 노동자로서 혹은 시민으로서 수많은 판틴이 자비가 아닌 ‘권리’를 찾아가지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형식적 권리를 실질적 권리로 채우고 나아가 생존권의 보장으로서 사회복지의 여러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다.

장발장은 죽은 판틴의 딸 코제트를 친 딸처럼 애지중지 기르고 성장한 코제트는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진다. 마리우스는 귀족집안의 아들이지만 민중의 삶과 혁명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바리케이드에 남아 끝까지 저항한다. 장발장의 도움으



로 목숨을 구한 마리우스는 코제트와 결혼하게 된다. 그리고 장발장의 죽음으로 영화는 막을 내린다.

바리케이트를 쌓고 끝까지 피흘리며 싸우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숙연했다.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아래로부터 일어나는 저항은 법적 권리 그 이상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법이 정한 장치로는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이 바로 저항권이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과 4·19 혁명을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법이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저항권과 그로 인한 희생은 늘 존재해 왔다. 그것은 시민 정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법과 권력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역사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법률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보니 또 다른 역사의 원동력을 놓쳤다. 영화 속 법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하고픈 이야기였는지 모른다. 그것은 '사랑'이다. 장발장의 판틴에 대한 연민, 코제트와 마리우스에 대한 사랑, 심지어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자베르에 대한 사랑이 그것이다. 또한 마리우스를 위해 희생한 에포닌의 사랑, 또 코제트와 마리우스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그리고 죽음까지 불사한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사랑도 영화 속 이야기로 법률 못지않게 밤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영화나 원작자가 전하고자 한 것도 사랑과 법적 정의가 본래 하나였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모순을 겪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려 했는지 모른다.

나 역시 사랑과 규칙 사이에서 아들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넌 내가 레미제라블 속에서 어떤 아빠였으

면 좋겠니?”

“장발장이요.”

아들은 통명스럽게 대답하였다. ‘자베르’같은 날더러 그가 가장 싫어한 장발장이 되라고? 코제트를 기르고 마리우스를 살려낸 장발장이 되어 달라고?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바뀌겠나 싶었다. 하지만 시도는 해보아야 한다. 퇴근 후 혈령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아들 옆에 앉았다. 결눈질로 녀석의 게임기를 보며 물어보았다.

“그,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좀 가르쳐 줘봐.”

